

第9回「科學의 날」

紀念式盛大

國民勳章冬栢章，銅塔產業勳章授與
科學，技術，技能，大統領賞施賞

國家安保，國力培養에 總和精進 決議文 채택

第9回「科學의 날」紀念式이 지난 4月 21日 市內 太平路에 있는 市民會館 別館 大講堂에서 崔圭夏國務總理，崔亨燮 科學技術處長官，國會 金裕瑋經科分科委員長을 비롯한 內外 貴賓과 科學技術界 教育界 產業界 人士 1,3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 되었다.

崔圭夏國務總理는 이날 致辭를 통해 「우리가 經濟發展을 成功의으로 推進해온 지난 60年代는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發展에 一大轉機를 이룩한 年代」라고 말하고 「經濟開發에 着手할 當時만해도 우리는 貧困한 科學技術의 遺産밖에 없었던 것이나 그동안 꾸준히 이 分野의 開發을 促進함으로써 急速한 經濟成長을 뒷받침 해왔다」고 致賀하였다.

崔國務總理는 「우리는 比較的 짧은 時日안에 相當한 水準의 科學技術의 資源을 蓄積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科學技術 水準은 先進各國에 比하여 아직도 滿足할만한 段階에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第4次 5個年計劃期間에 있어서는 產業間의 均衡된 發展과 高度化를 通하여 經濟의 自立的 構造를 이룩해나갈 課題를 안고 있다」고 強調 하였다.

崔 국무총리는 「날로 增大되고 있는 技術人力의 需要를 充足해 나가야 함은 勿論 設備과 機械類의 國產化를 促進하고 또 끊임없는 技術革新을 通하여 產業全般의 生産性을 提高시켜 나갈 것」을 強調했다.

崔 국무총리는 「政府는 科學技術의 振興을 爲하여 政策과 制度의 發展, 研究, 開發體制의 確立等 多角의인 施策을 推進하는 한편 先進技術導入의 促進, 技術集約의인 輸出產業의 育成等

民間部門에 對한 助成과 支援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世界的인 資源難에 對處하여 國內賦存資源의 探查와 開發을 本格化하고 資源節約을 爲한 施策을 強力히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國務總理는 科學技術人이 「生産과 建設의 一線에서 또 새마을運動의 現場에서, 敎壇과 研究室에서 맡은바 職分을 忠實히 遂行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水準의 向上에 큰 貢獻을 하였다」고 致賀하였다.

이 式典에서는 有功 科學技術人 尹鐸求(韓國原子力研究所 癌病理學研究室長), 蔡永福(韓國科學技術研究所 有機化學研究室長)에게 國民勳章 冬栢章이 授與되었고 金正澈(正林建築 代表理事), 朴洪圭(G.M. Korea 製造技術擔當 副社長) 明鳳德(鎭海化學 機械整備係長), 申允澈(韓國肥料 蔚山工場 作業班長)에게는 銅塔產業勳章이 各各 授與되었다.

또한 科學技術人의 最高의 榮譽인 大統領賞(副賞 200萬원)은 科學賞에 李敏載氏(서울大學校 自然科大學 敎授), 技術賞에 李鼎鈺氏(韓國綜合化學 羅州工場擔當理事), 技能賞에 沈震燾氏(石油化學支援工團 整備係長)에게 各各 授與 되었다.

이날 科學技術人의 羨望인 施賞式에 이어 金允基會長(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維新理念의 透徹化와 科學技術의 暢達을 實踐하는 役軍으로서 國家安保와 國力培養에 總和精進을 다짐하는」 4個項의 決議文 朗讀을 끝으로 紀念式의 幕을 내렸다.